

2020 새 설계

최형식 담양군수

# “현안사업 완성도 높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이끌겠다”



“현안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 경쟁력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최형식 담양군수 “담양다움 강화”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만들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을 조성하는데 지난 수년간 주력해왔다”며 “새해에는 민선7기의 균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군수는 우선 지속가능한 ‘담양식 자치 농정’ 구현을 강조했다.

최 군수는 “지역의 핵심산업인 농업을 농민이 스스로 설계하는 자치 농정 시스템으로 새롭게 바꾸겠다”며 “6차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농업 분야 관계자들이 주도하는 담양군 농업회의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농산물 가공 시설 확대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WTO 개도국 지원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해 선제 대응 방안을 고민하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품목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죽녹원 콘텐츠 확충 국가 정원 승격

‘담양식 자치 농정’ 시스템 구현 최선

자연·문화예술 공존 ‘여행자 도시’로

최 군수는 “기존 친환경 농업과 위생 축산물 실천 기반을 더욱 확충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와 신뢰를 유지하면서 RPC 통합, 담양 딸기 명품화, 저지방 담양 한우 브랜드 육성 등 지역 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도입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안정적인 정착과 유류 선진사례를 접목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기반 육성 등 농업인들의 소득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사회의 이익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경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호남고속도로 담양IC 부근에 ‘창업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계획도 내놓았다.

최 군수는 “담양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문화 복합단지, 메타 프로그래밍, 에코 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분양 등 대규모 현안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고서 보춘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월산 케이블카 조성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유치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자연과 문화예술이 있는 ‘여행자 도시’ 조성도 강조했다.

최 군수는 “기존 관광자원에 매력을 더하기 위한 제2 용마루길 조성 사업, 메타 서클 프로젝트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새롭게 개장한 에코센터·개구리 생태공원을 차별화된 환경체험 공간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문정신이 깃든 생태 정원 도시를 만들고 지방 정원으로 등록된 죽녹원에 콘텐츠를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해 죽녹원을 국가 정원으로 승격 시키겠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 2020년 주요 사업은

- ▲ 지속가능한 ‘담양식 자치농정’ 구현
- ▲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
- ▲ 자연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여행자의 도시’ 건설
- ▲ 인문정신이 깃든 생태정원도시 건설
- ▲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조성.

찾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개인이든 조직이든 발전할 수 있다”며 “군민이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지방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담양식 마을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는 ‘소통과 혁신’에 무엇보다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형식 담양군수는 “청년 근로자의 지속적인 유입과 유망인구 증가로 원도심 골목 곳곳에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kwangju.co.kr

## 담양군, 설날 소쇄원 등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담양군이 설 명절 당일인 25일 주요 유류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한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출향인과 관광객들에게 담양의 대표 관광지를 무료 개방해 보다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다.

무료 개방 대상 관광지는 죽녹원, 메타 세콰리아랜드, 소쇄원, 한국대나무박물관

관, 한국가사박물관, 가마골생태공원 등 모두 6곳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나홀만의 연휴를 맞아 담양을 찾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편의시설 점검과 종사자 친절 교육 등 관광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신청하세요”

신기술보급·특화작목 육성 등 51개 사업 진행

내달 7일까지 농기센터 접수

화순군은 ‘2020년도 농촌진흥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촌진흥사업은 새로운 영농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기술보급과 40개 사업(278개소), 농촌지원과 11개 사업(27개소) 등 총 51개 사업(305개소 내외)이 진행된다.

사업비는 총 29억3000만원이다.

화순군 거주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단체, 법인 등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별 신청 요건을 갖춰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업기술

센터나 해당 지역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원 사업은 벼 소식재배 실증시험, 토종작물 생산 실증,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 팜 단지조성, 1읍·면 1특작작목(초당옥수수·포도·마늘·참깨 등) 채취·애플수박·참두릅·토종 상추·살구·단호박·토종 다래)육성, 1사·군 1특화작목 복숭아단지 육성,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지원 등이다.

화순군은 사업별로 신청 농가의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농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설을 일주일 가량 앞둔 16일 장성의 시설원에 하우스단지에서 레드향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장성군 제공>

## 장성 ‘레드향’ 설 앞두고 본격 출하

식감·과즙 풍부...이달 중순 공판장 등 판매

장성군에서 생산된 ‘레드향’이 설을 앞두고 본격 출하된다.

그동안 레드향은 주로 제주도과 전남 남부 해안지역에서만 재배 가능했다.

장성군이 레드향을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칼라푸르트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지난해 1월 성공적으로 첫

수확의 결실을 맺었다.

올해 수확한 레드향은 이달 중순부터 직거래 장터와 공판장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레드향”은 일반 감귤보다 크기가 크고 붉은 빛이 도는 만감류 과일로 당도는 평균 13브릭스(Brix)로 높고 알갱이가 탱글

탱글해 식감과 과즙이 풍부하다.

특히 장성지역의 연간 일조시간은 제주도의 700시간 보다 많은 2300시간을 유지함으로써 당도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비타민C와 비타민P가 풍부해 겨울철 혈액순환·감기예방·피부탄력 등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설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장성지역 레드향 재배면적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신소득 유망 작목으로 떠오르면서 꾸준히 늘어 현재 16농가에서 4ha에 레드향과 천혜향,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장성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상반기 공공근로자 43명 모집

장성군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될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황룡강 관리, 장성 근린공원 조성, 문화·체육공간 가꾸기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7개 분야 32명과 공공실버주택 업무지원, 버스타미널 환경정화 등 공공근로 사업 7개 분야 11명 등 총 43명이다.

신청대상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지역 주민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65% 이하에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하며, 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교통비와 간식비 5000원을 비롯해 주차·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며, 4대 보험 가입 혜택도 주어진다.

일자리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지참해 31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며 군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전남 목포시 상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6.5㎡(413.37평) 건물 : 684.43㎡(207.04평) 지상5층 주차장별도 매매가 50억 백년대로본 보증금2억7천 월수입2천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토지**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2691㎡(813.99평) 매매가 122억 분할가능 8차선대로변접 병원, 사옥 건축 적합. 현 건축물 있음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5233㎡(1582.98평) 매매가 58억5천7백 대로변 위치최상, 조정가능
- 주요소** 광주 광산구 장덕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69㎡(595.62평) 매매가 50억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70%) 20억5천1백만원
- 공 장** 전남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16552㎡(5007평) 건물 : 7077.93㎡(2141.1평) 울촌제1산업단지내 감정가 55억5천3백만원 최저가 55억5천3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동구 충장로5가 78 토지 : 1403.6㎡(424.6평) 건물 : 8545.06㎡(2584.9평) 지하2층 지상8층 감정가 89억6천7백만원, 최저가 (70%) 62억7천7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북구 중흥동 704-9 토지 : 662㎡(200.3평) 건물 : 4555.58㎡(1378.1평) 지하2층 지상10층 감정가 41억9천8백만원, 최저가 (70%) 29억3천8백만원
- 근린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토지 : 607㎡(183.618평) 건물 : 762.51㎡(888.809평) 지하1층 지상3층 곡성은천 감정가 6억9천3백만원, 최저가(70%) 4억8천5백만원
- 농 지** 광주 서구 쌍촌동 488번지 266㎡(80.5평) 감정가 2억3천6백75만원 원룸, 주택부지 적합
- 농 지** 광주 서구 동림동 180-1번지 1098㎡(332.1평) 감정가 2억8천9백9십만원 최저가 (70%) 2억3백만원
- 주 택** 광주 북구 운암동 780-56 토지 168㎡(50.82평) 건물 205.87㎡(62.276평) 감정가 1억6천8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산 이스토리 1층 62평형 감정가 4억1천6백만원 최저가 4억1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